‘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0.5% 올리고 우대 조건 완화

5대 은행, 기본금리 4.0% 등 최고 금리 6.0% 유지키로
은행들 대규모 손실 우려에 ‘가입자 수 상한’ 설정 요구

오는 15일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치열한 눈치 싸움 속에 적정 금리 수준을 선뜻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잠정 금리를 공시한 뒤 당국과 여론으로부터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기본금리보다 우대금리 비중이 너무 크다’ 등의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결국 5대 은행은 모두 기본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0.5%포인트 깎아 가입자들이 높은 금리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조차 낮추지 않고 최고 금리 자체를 6.5%로 높일 예정인데, 기업은행을 비롯한 이들 ‘6.5%’ 은행은 쏠림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한 장치를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기본금리 비중 늘리고 카드 실적 등 우대금리 조건 완화도 검토=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4.0%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잠정 금리 공시 당시 이들 은행이 공통으로 내놓은 기본금리(3.50%)와 비교해 0.5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동시에 다수 은행은 여러 조건을 달아 책정한 최대 우대금리를 지난주 공시 당시 2.00%에서 1.50%로 낮춰, 소득 조건별 최대 우대금리 0.50%포인트까지 더한 최고 금리 수준을 6.00%로 유지할 계획이다.

당국 등의 요청대로 기본금리 비중은 늘리고(58.3→66.7%), 우대금리 비중은 줄이면서도(33.3→25.0%) 지나친 역마진을 고려해 최고 금리가 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과도한 카드 결제 실적 등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던 은행들의 경우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은행 6.5% 상향 조정 준비=아직 소수지만 일부 은행은 우대금리 2.00%포인트를 그대로 둔 채 기본금리만 0.50%p 올려 최고 금리를 6.00%에서 6.50%(4.00+0.50+2.00%)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 이미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6.50%(4.50+0.50+1.50%)를 제시한 기업은행과 같은 수준이다.

만약 현재 검토 중인 안대로 오는 14일 확정 금리가 공시될 경우, 청년도약계좌 시장은 최고 6.5%를 보장하는 소수 은행과 최고 6.0%를 고수한 다수 은행으로 나뉘게 된다.

이 경우 앞서 지난해 비슷한 성격의 청년희망적금 판매 당시 확인된 것처럼, 불과 0.1~0.2%포인트라도 더 주는 은행으로 가입자가 몰려 결국 해당 은행은 최대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행권은 개별 은행의 가입자가 일정 기준에 이르면 판매를 종료할 수 있는 ‘가입자 수 상한’을 설정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한 뒤 답을 기다리고 있다.

◇당국 눈높이보다 여전히 낮아…“사회공헌 측면에서 긍정적 검토를”=하지만 주요 은행들이 현재 검토하는 안대로 기본금리를 다소 올려도, 당국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기업은행이 기본금리를 4.5%로 제시했고, 한 곳만 너무 높으면 쏠림 문제도 있으니 다른 은행들도 기본금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조정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은행들이 역마진을 이야기하는데, 사회공헌의 측면이 있는 만큼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국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가장 친숙한 인터넷은행들이 이번 청년도약계좌 판매에 동참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에도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권유했지만, 한목소리로 “대면 업무를 처리할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과 여론을 의식한 인터넷은행들은 관련 계획을 묻자 공통으로 “추후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 금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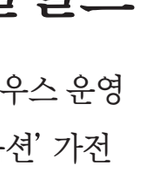
최종금리 14일 공시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총 12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15일 운영 시작
※ SC제일은행 2024년 1월 운영 시작

본인 납입금
월 40~70만 원 x 60개월 x 금리
기본금리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3.5~4.5% | 0.5% | 1.5~최대 2.0%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정부 기여금(월 최대 24,000원 x 60개월) x 기본금리



연합뉴스 자료: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광주상의와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전남지역 상의 회장들이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해야”

광주·전남 상의 공동 성명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미래 핵심산업 절실”

광주·전남 상공인들이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3일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광주·전남 경제계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이끌고, 지역의 신(新) 성장동력이 될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화단지는 K-반도체의 재도약을 위한 출발점이자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가의 주권과 경제안보를 지켜낼 핵심”이라며 “경쟁력 확보에 용이한 우수한 인프라 보유에서부터 전·후방 연관산업과의 시너지 같은 성장잠재력,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의 달성 여부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광주·전남은 반도체 특화단지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광주·전남은 오랜기간 지속된 지역 불균형에 열악한 산업 인프라, 인구 유출, 인력난 심화 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침체,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반도체와 같은 미래 핵심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충분하고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과 오폐수의 처리는 물론 GIST와 전남대를 비롯한 지역 내 우수 대학과 연계를 통한 각종 연구와 기술개발, 우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인 RE100 등 에너지믹스의 실현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라는 제20대 대선공약의 실천은 물론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달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초광역협력의 모범사례로도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주·전남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강력한 산업경쟁력에 기반한 국가안보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반도체 중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드시 광주·전남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완도군청 인근 고급형 ‘노블힐스’

84~107㎡ 29세대 본격 분양·9월 입주…샘플하우스 운영
4베이 구조…냉장고·스타일러 등 전 세대 ‘풀옵션’ 가전

완도군청 인근에 들어서는 고급형 주택 ‘노블힐스’〈사진〉가 샘플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956-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노블힐스는 지상 5층, 3개 동, 총 2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 14세대, 107㎡ 15세대로, 최고층에는 옥탑과 테라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입주는 오는 9월 예정이다.

단지는 완도군청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군청을 비롯해 중앙시장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문화체육센터 등이 인근에 있어 편리한 생활·행정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도보 5분 거리 완도중학교와 인근 완도초, 군립도서관 등 교육환경도 갖췄다는 평가다.

또 단지 앞 청해진남로를 통해 77번 국도 진입이 수월하고, 광주~완도고속도로 1단계 구간을 거쳐 2단계 구간인 강진~완도고속도로 개설 추진 등 광주와 신지·고금면 접근도 용이하다.

무엇보다 단지 주변이 산으로 둘러 싸여있어 태풍과 해일, 해습 등 자연재해 피해가 없는 안전지역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노블힐스는 고급형 주택인 만큼 선호도가 높은 4베이 구조로, 차량통제와 단지전용 CCTV 구축을 통해 안전한 보안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홈 네트워크 기기부터 가전까지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등 고급형 주택만의 특화시스템도 제공한다.

특히 전 세대 한샘 인테리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공간활용도를 높인 게 특징이다. 에어컨,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신발건조기,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전 세대 ‘풀옵션’ 가전도 제공한다.

한편 노블힐스는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으로 진행됨에 따라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샘플하우스를 운영한다. 분양문의 061-555-8855. /김민석 기자 mskim@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 광주 첨단산단 현장 방문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13일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와 지역 주요 기업을 방문하는 등 현장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상훈 이사장은 광주본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광주지역 주요 현장을 방문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광주본부 주요 사업 추진현황·산업단지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이사장은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산단사업 현장과 광주첨단산단 입주기업인 ㈜DH글로벌을 방문했다. 또 광주첨단경영자협의회와 광주평동경영자협의회 등 광주지역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광주첨단산단을 비롯한 광주지역 산업단지를 디지털·저탄소의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단지공단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상훈 이사장은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후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MIT)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2년 제28회 기술고시 전체수석으로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소프트웨어(SW)산업과장,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전문관,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지원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광주첨단산단 입주기업인 ㈜DH글로벌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정권 ㈜DH글로벌 회장, 이상훈 이사장, 황상현 산단공 광주본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될까

한전, 16일까지 인상 요인 제출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40여일 지연 결정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3분기(7~9월) 시작을 앞두고 또다시 요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 요인은 오는 15일께 공개되는 3분기 연료수입 무역통계 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범위는 ‘kWh당 5원 인하~5원 인상’ 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한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 요인과 관계없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유보(동결)할 권한이 있다.

이후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곧바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에너지업계 일각에선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추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동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37.95(+8.60)
↑	코스닥	896.81(+11.05)
↓	금리(국고채 3년)	3.484(-0.009)
↓	환율(USD)	1271.40(-16.90)